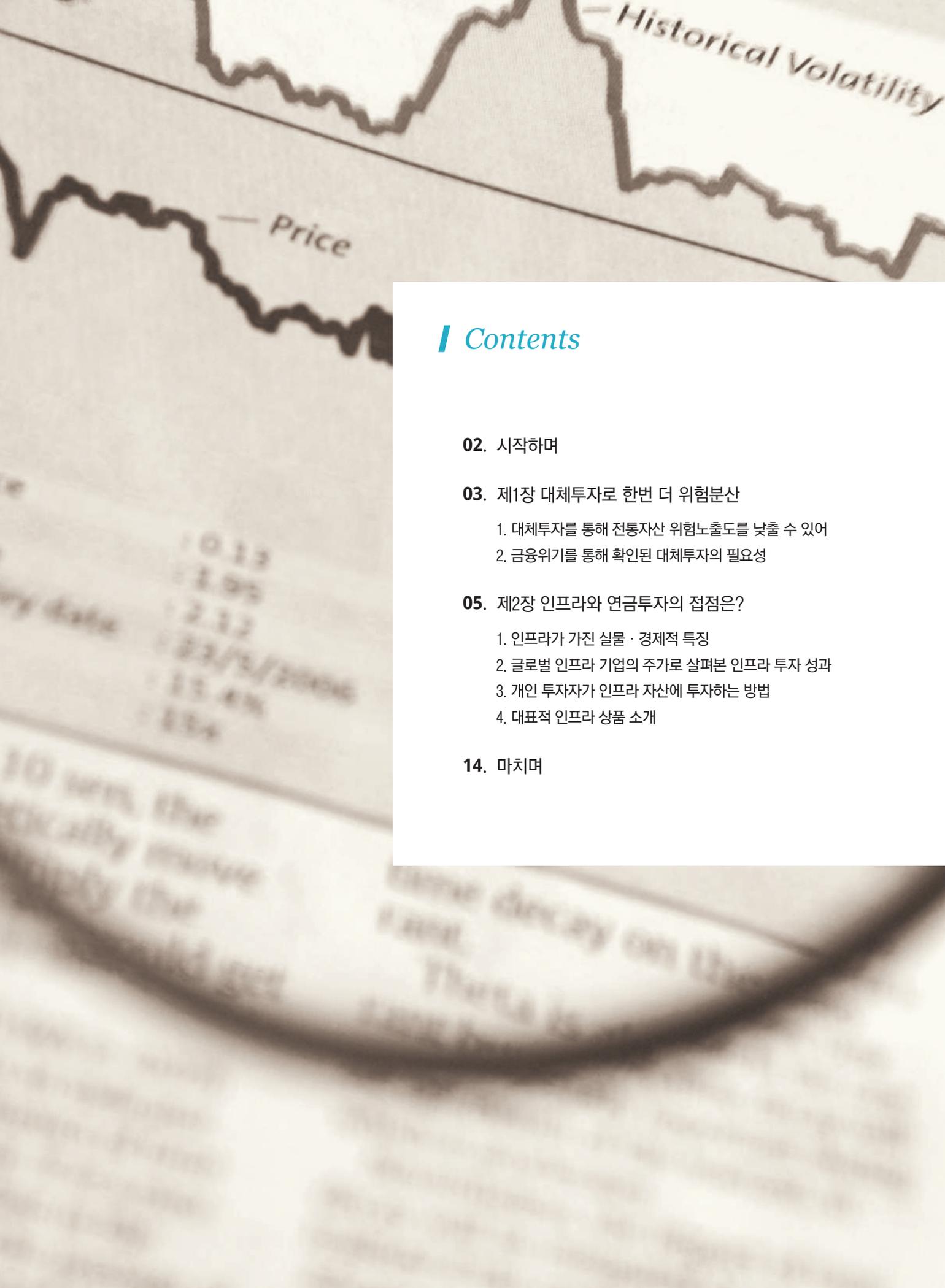


투자생활백서 제5편
대체투자의 한 축, 인프라 투자

Issue Report Vol.9, November 2014





/ Contents

02. 시작하며

03. 제1장 대체투자로 한번 더 위험분산

1. 대체투자를 통해 전통자산 위험노출도를 낮출 수 있어
2.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대체투자의 필요성

05. 제2장 인프라와 연금투자의 접점은?

1. 인프라가 가진 실물·경제적 특징
2. 글로벌 인프라 기업의 주가로 살펴본 인프라 투자 성과
3. 개인 투자자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4. 대표적 인프라 상품 소개

14. 마치며



시작하며

인프라스트럭처란 운송,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실생활을 지탱해주는 사회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국내 연금투자자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로 남아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각종 공·사적 연금자산에 일정 부분 편입되어 대체투자의 비중 있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짚어보고, 투자대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대체투자자로 한번 더 위험분산

대체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등의 전통자산 가격과는 연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내포된 기대수익률과 위험도도 조금씩 다르므로 포트폴리오에 대체자산을 편입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위험의 분산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대체투자자산 대부분이 중수익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투자환경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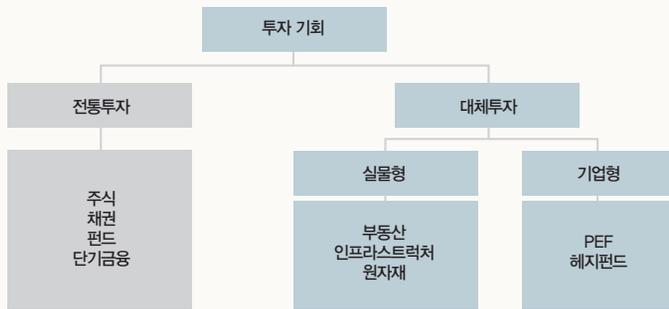
1. 대체투자를 통해 전통자산의 위험노출도를 낮출 수 있어

기관과 개인을 막론하고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 나갈 것인가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금융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의 속성을 공유한다면, 편입 상품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당 포트폴리오에 충분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투자자산은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존 자산군에 대한 대체재적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 종류인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물화된 자산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가격과는 연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각 자산에 내포된 기대수익이나 위험 성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 10년간의 자산별 성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투자자산은 주로 주식과 채권 중간정도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대체자산을 편입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험 관리 측면 외에도, 장기 수익률 제고의 목적에서도 대체투자가 필요합니다. 대체투자자산 대부분이 증수의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금리 투자환경 속에서 주식시장의 잠재 수익률마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은퇴자산의 변동성 보호 뿐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1] 대체투자의 분류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1] 대체투자자산의 수익·위험, 대체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에 위치



주: 2004.1월 ~ 2014.9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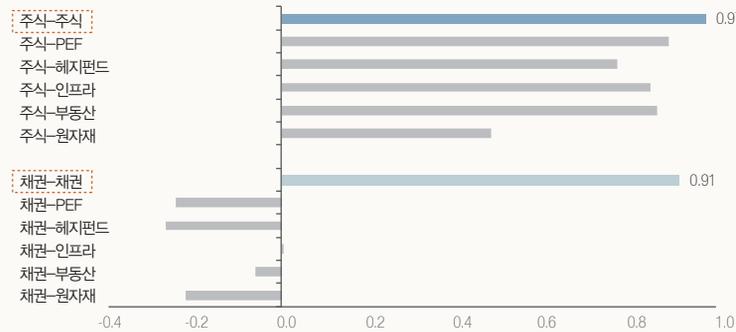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2.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된 대체투자의 필요성

대체투자의 당위성이 이론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잘 안 와 닿을 수 있으므로 지난 금융위기 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직격타를 가했는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주요국들의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산의 국가·지역 간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요국들의 공·사적 기금과 개인투자자 모두 큰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자산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기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투자를 꾸준히 늘림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위험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CalPERS(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와 캐나다 CPP(캐나다 국민연금)는 2008년 대규모 운용손실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다변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균형 있는 자산 배분과 수익률 모두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 해외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5%에 채 못 미쳤던 대체투자 비중이 2014년 6월 말 기준 10% 남짓으로 높아져 전통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림2] 전통자산과 대체투자자산의 상관관계, 상대적으로 낮아



주: 1) 2004.1월 ~ 2014.9월 말까지의 수익률, 2) 대체투자의 경우 상장지수를 사용하였으므로 비상장 또는 기타 투자방식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3]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동일 자산간 동조화 확대

	금융위기 전 (2001~2007)							금융위기 후 (2008~2014)							
	주식			채권				주식			채권				
	한국	미국	선진국	한국	미국(국)	선진국(국)	글로벌 하이일드	한국	미국	선진국	한국	미국(국)	선진국(국)	글로벌 하이일드	
한국	1.00							한국	1.00						
주식 미국	0.55	1.00						주식 미국	0.73	1.00					
선진국	0.60	0.94	1.00					선진국	0.75	0.98	1.00				
한국	(0.21)	0.02	0.04	1.00				한국	(0.09)	(0.02)	(0.02)	1.00			
채권 미국(국)	(0.22)	(0.19)	(0.15)	0.37	1.00			채권 미국(국)	(0.31)	(0.30)	(0.27)	0.38	1.00		
선진국(국)	(0.17)	(0.18)	(0.16)	0.34	0.92	1.00		선진국(국)	(0.32)	(0.31)	(0.28)	0.46	0.91	1.00	
글로벌 하이일드	0.25	0.60	0.61	0.21	0.25	0.19	1.00	글로벌 하이일드	0.72	0.76	0.81	0.04	(0.24)	(0.21)	1.00

주: 미국(국)과 선진국(국)은 해당국의 국고채를 의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제2장

인프라와 연금투자와의 접점은?

대체투자자산 중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는 필수재의 특성 상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데다가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장기투자자에게 특히 적합한 투자대상입니다. 관련 기업의 주가를 통해 인프라 투자성가를 살펴보면, 위험을 감안한 글로벌 인프라 업종의 누적 성과가 글로벌 주식을 장기적으로 상회함으로써 연금투자 목적에도 적합한 투자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인프라가 가진 실물 · 경제적 특징

인프라스트럭처는 운송 · 저장, 에너지, 통신, 공항, 항만 등의 분야에서 경제에 근간이 되는 필수 자산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인데다 필수재로서의 성격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사업상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즉, 독과점적 투자가 가능하고 경기변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산업의 안정성은 1)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사나 운영이 장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2) 착공 후 사용료나 통행료 형태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므로 안정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토대가 됩니다.

[표2] 인프라 자산의 실물 · 경제적 특징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표3] 인프라스트럭처의 산업별 분류 및 세부 시설 · 설비

경제 인프라				사회 인프라
 운송	 에너지	 통신	 기타	 일반
공항 항만 유료도로 터널 교량 화물철도	가스망 전력망 전력생산 재생에너지	무선통신망 위성시스템	저장시설 주차장 상 · 하수처리	교육시설 헬스케어시설 교회시설 대중교통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2. 글로벌 인프라 기업의 주가로 살펴본 인프라 투자 성과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 성과 역시 안정적인 사업 구조만큼이나 신뢰성 있게 나타날까요? 인프라 투자의 상당 부분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익률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투자 성과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인프라 관련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업종의 주당 이익(EPS)을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에 비해 출렁임이 덜하고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낮은 이익변동성과 양호한 현금흐름은 높은 배당성향으로 이어져 인프라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10여 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인프라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상회하는 반면, 글로벌 주식은 7% 안팎에 머물러 인프라 산업의 장기 성과가 시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4] 인프라 업종의 이익, 시장보다 출렁임 덜하고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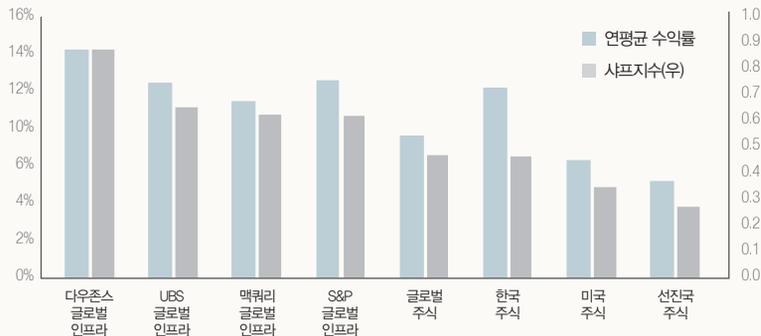
주: MSCI World Index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5] 인프라 업종의 배당수익률은, 시장을 크게 앞서



주: MSCI World Index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6] 글로벌 인프라 주식, 글로벌 주식 대비 성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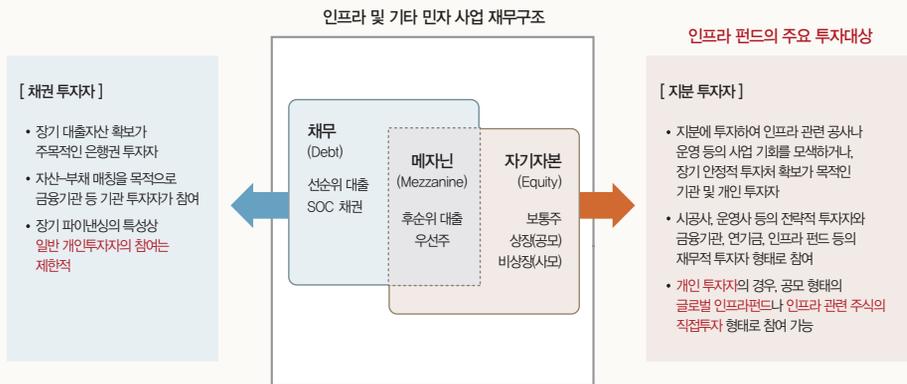
주: 1) 2003.1월~2014.9월까지 기간, 2) MSCI 총수익 지수 기준(배당 재투자 고려),
3) 샤프지수=초과수익률(수익률-무위험이자율)/표준편차, 4) 과거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3. 개인 투자자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인프라 투자는 크게 투자 대상 인프라의 부채에 투자하는 방식(채권 투자자)과 자본에 투자하는 방식(지분 투자자)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장기 대출자산 확보가 주목적인 은행권이나 기타 자산-부채 매칭 수요가 큰 금융기관(기관투자자)이 주요 주체인 한편, 개인 투자자를 위한 리테일 채권은 국내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인프라 자산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1) 공모 펀드에 가입하거나, 2) 상장된 인프라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표4] 인프라 투자방법 개요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첫째, 인프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의 지분이나 현금흐름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지역의 경제 및 인프라 전망에 따라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골고루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개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대부분이 재간접 형태로 설정되어(중간에 위탁운용사 존재) 추가 운용보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이 같은 이점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상장 지분에 대한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매기 배당 형태의 분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일반 주식을 크게 상회합니다. 배당투자가 주목적인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수단인 반면, 여러 종목을 담을 수 있는 펀드에 비해서는 투자 대상이 한정적입니다¹⁾.

1)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인프라 펀드로는 맥쿼리인프라(A088980) 한 개 종목 밖에 없음. 국내 인프라 펀드에 대한 지분투자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표5] 개인투자자가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투자방법	인프라 펀드 : 인프라 관련 기업의 지분이나 현금흐름에 간접 투자	인프라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상장 주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국가 · 지역의 인프라 사업 전망을 기반으로 투자 • 다양한 인프라 섹터에 골고루 투자하여 분산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투자가 주목적 •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 제공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여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 편입 가능 • 투자지역의 지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위탁 운용사가 존재하여 비교적 높은 보수 징수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주가지수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임 •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환금성 높음 • 특정 인프라 기업이나 프로젝트 단위에 한정된 투자는 단점
관련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 도이치 글로벌 인프라 펀드 • 한국투자 미국 MLP 특별자산 펀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 인프라(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유일한 인프라 펀드)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4. 대표적 인프라 상품 소개

(1) 주식형 인프라 펀드,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에 손쉽게 분산투자

인프라 주식은 수익률이나 배당 측면에서 시장을 대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인프라 산업이라도 지역 혹은 세부 업종에 따라 수익성이나 이익의 변동성이 차별화됩니다. 주식형 인프라 펀드는 각 국가나 지역의 인프라 사업 전망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수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초과수익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글로벌 주식형 인프라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택하고 있는 주요 지수들(그림8 참고)의 기간별 성과가 다른 이유는 각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주력 업종, 밸류체인상의 위치, 사업지역, 인프라 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우존스 브룩필드 글로벌 인프라 지수(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의 경우 매기간 비교그룹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인프라 산업의 가장 핵심적 특징을 복제하는 순수 인프라 기업(Pure Play)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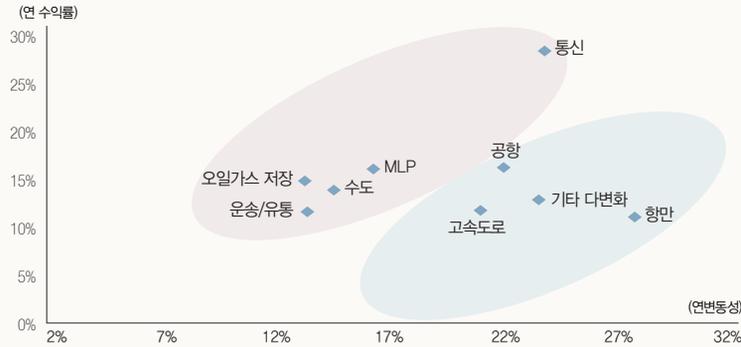
[표6] 순수 인프라는 인프라 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줘

인프라 기업 유형	기업 수 (개)	시장 규모 (십억 불)	산업	특징
광의 (Broad)	207	761	건설 전력 생산 해운 등	직접적 인프라 자산은 아님 인프라 관련 비즈니스 소유
핵심 (Core)	161	1,409	인프라 서비스 유틸리티 철도 등	법률적인 순수 계약관계 장기계약을 통한 현금흐름은 창출되지 않음
순수 인프라 (Pure Play)	209	1,028	송전 및 배전 오일가스 저장 및 운송 유료도로 등	진입 장벽이 높고 이용료 등의 단순하고 안정적 수익 근본적 인프라 특징을 나타냄

주: 2014.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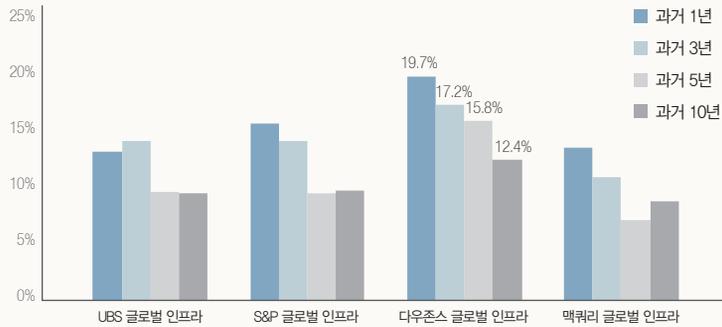
자료: Deutsche AWM,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7] 글로벌 인프라 주식의 투자 성과, 업종별로 차별화



주: 1) 2004.1월 ~ 2014.9월 말 기준, 2) Dow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Total Return Index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8] Dow Jones Brookfield 지수, 비교지수 대비 연평균 수익률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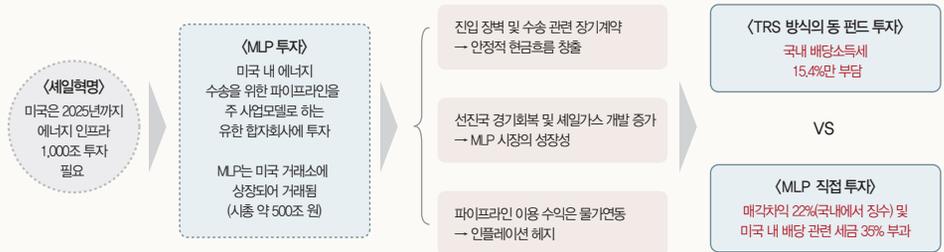
주: 2004.9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2)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펀드, 미국 셰일가스의 장기 성장성에 주목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는 에너지 수송과 관련한 합자회사를 뜻하는 명칭인데, 국내에서 MLP 펀드라 하면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운송 및 저장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칭합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형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셰일가스의 높은 성장성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온 결과 최근 10년간의 MLP 주가(MLP 대표 지수인 Alerian MLP Index 기준)는 연평균 16%를 상승해 같은 기간 미국 주식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잉여 현금흐름의 90% 이상을 분배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MLP의 특성상 배당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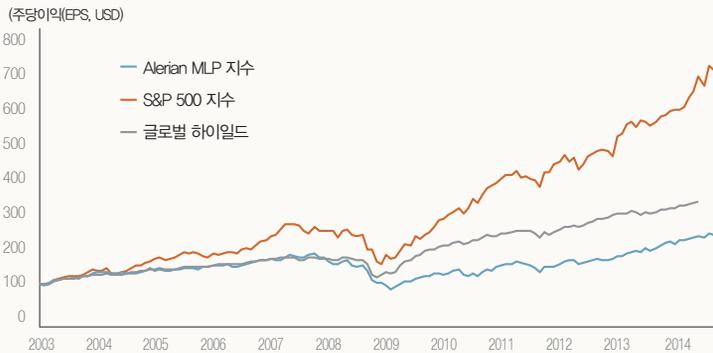
또한, 국내 투자자가 MLP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세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직접투자 시에는 매각 차익에 대해 국내 세금 22%에 미국 내 배당관련 세금 35%가 더해지는 반면, 펀드로 투자 시에는 국내 배당소득세 15.4%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림9] MLP는 미국 셰일가스 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가능한 투자형태 중 하나



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그림10] MLP 수익률, 미국 주식 및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의 투자 성과를 상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3) 상장 인프라주식·펀드, 거래 편리성에도 고배당 메리트 직접적으로 누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로는 맥쿼리인프라(2006년 거래소 상장)가 유일합니다. 물론 주식형 인프라 펀드에서처럼, 인프라 관련 기업의 상장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직접 투자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순수 인프라(Pure Play) 사업은 국가가 운영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국과 같이 순수 인프라에 대한 상장지분 형태의 투자 기회는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합니다.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펀드의 편입 대상이 모두 국내 인프라 자산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소수입 보장(MRG) 조건이 부여된 유료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총 12개 편입자산 중 11개에 해당)하고 있어 안정화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6~8%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꾸준히 기록 중인데 이는 2%에도 채 못 미치는 국내 시장 평균에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인 데다가 매년 현금으로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즉시연금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11] 상대적으로 높고 꾸준한 배당은 맥쿼리인프라의 보유 가치를 높여



자료: 맥쿼리인프라,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마치며

인프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인 것과 같이, 노후의 재정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은퇴자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노후 생활이란 불안과 불편의 연속일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충실한 공정을 거쳐 완공된 고속도로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밀한 설계와 전략을 바탕으로 적립된 은퇴자산은 내용 연한이 조기에 단축될 우려가 적고, 계획된 인출이 보장되면서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체투자의 한 축으로서 인프라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춰주는 한편, 중수의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금투자 목적에 적합한 투자 대상입니다.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노후의 재무인프라를 확보에 나가는 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友

투자생활백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퇴직연금과 은퇴시장 리서치, 은퇴자산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과제로 은퇴자산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실무 해설서와 퇴직연금 용어해설서를 발간한 것을 비롯해 연금투자, 퇴직연금뉴스, 은퇴투자 가이드 등의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적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리포트는

은퇴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은퇴자산 컨설팅의 일환으로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 은퇴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알리고자 발간되는 비정기 발간물입니다.

- Vol.1: 연금생활백서 제1편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기'
- Vol.2: 연금생활백서 제2편 '퇴직연금으로 재테크하기'
- Vol.3: 연금생활백서 제3편 '연금저축계좌로 재테크하기'
- Vol.4: 투자생활백서 제1편 'ETF 제대로 활용하기'
- Vol.5: DC 가입자 운용행태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 Vol.6: 투자생활백서 제2편 '꼼꼼히 따져보는 해외채권 투자'
- Vol.7: 투자생활백서 제3편 '배당투자의 재조명'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은퇴설계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계약권유문서,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4년 11월 6일
발행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발행처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디자인	SOON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국투자증권빌딩 7층
문의	1544-5000
이메일	retirement@truefriend.com
홈페이지	retirement.truefriend.com

투자생활백서

